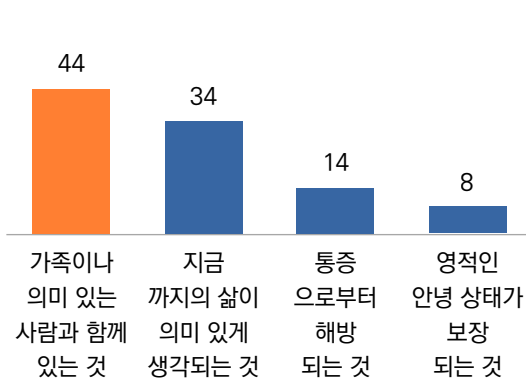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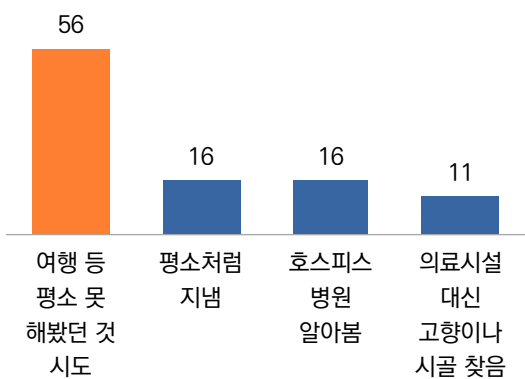
## 의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, '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!'

- ▶ 최근 들어 죽음과 관련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죽어가야 사람들의 관심이 된 것 같다. 헬스조선에서 지난 6월 초 의사 1,000명을 대상으로 웰다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, '좋은 죽음'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물은 결과, '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'이 44%로 1위를 차지했다. 이어서 '지금까지의 삶이 의미 있게 생각되는 것' 34%, '통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' 14% 등의 순이었다. 가족과 함께 하고, 의미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의사들이 생각하는 웰다잉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.
- ▶ 이번에는 만약 임종이 6개월 남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. 그 결과, '여행 등 평소 못 해봤던 것을 시도하겠다'가 절반 이상(56%)으로 가장 많았다.

[그림] '좋은 죽음'의 중요한 요소 (의사 대상, %)



[그림] 임종이 6개월 남았다면 하고 싶은 것 (상위 4위, 의사 대상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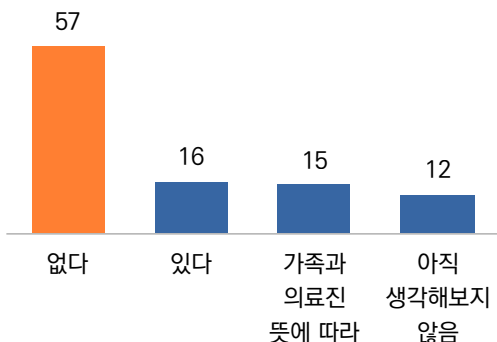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헬스조선, 임종 6개월 전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?[의사들 생각은...], 2023.06.15. (인터엠디 의사 회원, 1,000명, 2023.06 조사)  
([https://health.chosun.com/site/data/html\\_dir/2023/06/15/2023061502060.html](https://health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3/06/15/2023061502060.html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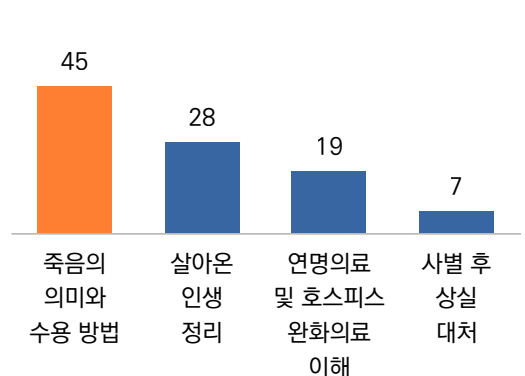
## ◎ 의사 57%, 연명의료 받을 계획 없어!

- ▶ 연명의료를 받을 계획에 대해 물은 결과, 의사 10명 중 6명 가까이(57%)는 '없다'고 응답했다. 반면 계획이 '있다'고 답한 비율은 16%에 불과했다.
- ▶ 죽음을 빠르게 배움으로써 삶을 보다 의미있게 영위하도록 이끄는 교육이 '죽음 교육'인데 의사들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물었다. 그 결과, '죽음의 의미와 수용 방법'(45%)을 가장 많이 꼽았고, 그 다음으로 '살아온 인생 정리', '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' 등의 순이었다.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
[그림] 연명의료 받을 계획 (의사 대상, %)



[그림] 죽음 교육에 필요한 내용 (의사 대상, %)



\*자료 출처 : 헬스조선, 임종 6개월 전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?[의사들 생각은...], 2023.06.15. (인터엠디 의사 회원, 1,000명, 2023.06 조사)  
([https://health.chosun.com/site/data/html\\_dir/2023/06/15/2023061502060.html](https://health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3/06/15/2023061502060.html))